

'투뱅크' 자율경영권 보장... 지역출신 90% 채용

JB 금융지주-광주은행 노조 상생협약 11개항 합의

실사작업도 협조... 조특법 처리 등 매각작업 급물살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B(전북은행) 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사가 상생협약안에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 왔던 광주은행 매각작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김장학 광주은행장과 강대욱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19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금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독립법인 유지 ▲고용안정 보장 ▲경영자율권 보장 ▲임금 및 복지증진 ▲자본 적정성 유지 ▲인력채용 ▲지역사회 환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분의 지역 환원 ▲지주사 명칭 변경 ▲민영화 절차 협력 등 총 11개 항에 합의했다.

JB금융지주는 이날 협약을 통해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은행명칭과 본점 소재지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산시스템과 카드사업을 독자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인위적인 인력과 점포 구조조정 없이 인사권 등 독립적인 자율경영권을 보장하는 한편, 임금과 복리수준을 점진적 개선기로 하는 등 경영안정과 경

영자율권 보장, 직원의 복지증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광주은행 신입행원 채용 때 광주·전남 출신을 90% 이상 채용하고,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지주사 명칭의 경우, 대·내외의 공모를 통해 변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 광주은행 노사가 JB금융지주의 확인실사 등 광주은행 민영화 및 매각을 위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대의원 94%의 찬성률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JB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예금보험공사와 광주은행 인수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광주은행 실무진은 JB금융지주와 협의체를 구성,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JB금융은 지난 12일부터 6주간 광주은행 실사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광주은행 노조측이 '상생방안 미합의'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 무산되기도 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시 우리금융이 내야 할 6500억원의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강대욱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김한 JB금융지주 회장(가운데), 김장학 광주은행장이 19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금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제공>

에 대한 논의가 20일로 연기된 것도 우선협상자인 JB금융-광주은행 노조 간 상생협약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JB금융과 광주은행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조특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으며, 은행 매각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은행 김장학 행장은 "지역민들의 열원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최선의 상생협약을 도출해 냈다"면서 "민영화를 통해 광주은행 전 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지역은행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겨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홍경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역금융 상생발전 협약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은행과 JB금융지주 간 상생발전 	
독립법인 유지	- Two-Bank 체제 유지, 은행명칭·본점 소재지 현행 유지 - 전산시스템과 카드사업 독자적 유지 원칙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상호 협력)
고용안정 보장	- 인위적인 인력 및 점포 구조조정 없음
경영자율권 보장	- 인사권 등 독립적인 자율경영권 보장
임금 및 복지증진	- 임금 및 복리수준 점진적 개선
자본적정성 유지	-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현실적·합리적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전남 지역 사회 공헌 	
인력채용	- 광주·전남 출신 90% 이상 채용
지역사회환원	- 당기순이익 10% 이상을 지역 사회공헌사업에 사용
지역경제 활성화	-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 지역기업의 자금지원 확대 등
지분의 지역환원	- 광주은행 일정 지분 지역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지주사 명칭 변경	- 광주은행 인수 등을 고려 대·내외의 공모를 통하여 변경
민영화 절차 협력	- 광주은행과 광주은행 노조의 민영화 절차 및 매각 협력

기아차 '시간제' 을 200명 채용

현대차그룹 1000명...경력단절 여성·장년층 우대

기아자동차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올해 200명 규모를 채용한다. 현대차그룹은 19일 기아차와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24개 계열사에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 연내 총 1000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통해 ▲판매·서비스(제품 상담, 서비스 콜센터 등), ▲사무지원(일반사무, 사서, 어학강사 등), ▲개발지원(설계, CAD, 도면관리 등), ▲특수직무(간호사,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 등) 분야의 인원을 모집한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로 이르면 3월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며 채용에 대한 안내와 세부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그룹 홈페이지(www.hyundai.co.kr)와 각 사별 채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장년층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업무 특성이나 계열사별 사정에 따라 복수의 근무형태가 제시될 수 있으며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예를 들면 오전 위주의 근무 또는 오후 위주의 근무와 같은 방식으로 나뉘어 이에 맞게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는 방식이다. 급여는 해당 직무 내용에 따라 책정된 급여수준을 기초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각 사별 제도 및 근무시간에 비례해 복리후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로 이르면 3월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며 채용에 대한 안내와 세부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그룹 홈페이지(www.hyundai.co.kr)와 각 사별 채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보험료 4월부터 2~3% 오른다

중·소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는 4월부터 2~3% 오른다. 지난해 자동차보험료 적자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한 데 따른 것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도 온라인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단계적으로 동참해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와 더케이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료를 2~3% 올리기로 하고 금융당국과 조율 중이다. 이들 온라인 손보사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했으며, 최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변경 요율의 자료와 산출방식에 문

제가 없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카다이렉트 관계자는 "현재 요율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손해율 개선 추이와 가격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마쳤다는 건 보험료를 곧 올리겠다는 의미"라면서 "손해율이 높은 중소형 보험사들도 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비중이 절대적인데다 막대한 적자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일부 인상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삼성증권 호남권 법인포럼 오늘 라마다호텔

삼성증권이 호남권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상으로 열고 있는 호남권 법인포럼의 두번째 강연이 20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삼무지구 라마다호텔 4층 연회장에서 개최된다.

2월 포럼의 주제는 '국내·글로벌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전략'으로 구재상 케이클라비스투자자문 대표와 허진중 리서치센터 거시경제팀 책임

연구원이 강사로 나와 올해 글로벌 시장과 채권 투자전략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김태현 삼성증권 호남사업부장은 "경영인이 관심있어할 주제를 선정,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정보제공과 회원간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멤버십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062-380-1507. /김대성기자 bigkim@

제2금융권 대출 비중 큰폭 증가

작년 총대출의 절반 육박...가계부채 질 악화

은행의 높은 문턱을 못 넘고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도 대출 시장 구조가 바뀌어 따라 2금융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생명보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은 작년 말 현재 543조632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3조6684억원(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의 여신 규모는 예금은행 총대출(1154조7603억원) 대비 47.1%에 달했다. 이 비율은 10년 전인 2004년(연말 기준)만 해도 42.5%였으나 2007년 44.7%까지 매년 1%포인트씩 높아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6.2%로 급등하고서 2009년 45.8%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작년말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별 여신 규모를 보면 상호금융이 168조6924억원으로, 2004년보다 83조1969억원(97.3%) 늘고 생명보험(90조4841억원)도 97.2% 증가했다. 이에 비해 신탁회사 여신(55조1318억원)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04년(12조3159억원)의 4.48배로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신용협동조합(33조7888억원)도 2.75배, 새마을금고(61조1982억원)도 2.47배, 자산운용사 투자신탁 계정(38조1976억원)도 3.29배로 각각 증가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여신의 가파른 증가는 가계부채 등 채무의 질적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부대우전자는 19일 에너지 효율 1등급의 2014년 에어컨 신제품 다섯 모델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초절전 인버터 시스템을 채용, 기존 정속형 에어컨 대비 전력 소모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동부대우전자 제공>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42.93 (-3.98)	529.87 (+4.45)	2.86% (0.00)	1065.50원 (-0.20)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을
기준통과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을 58dB이하 중량충격을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충간 중량 충격을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층, 데코타일(직사각형), 데코타일(정사각형)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융건설 InstaFloor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무례츄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금남로 4가 시거리, 금남로 5가 시거리

동부대우 광주지점, 센트럴, 저속은행, 신한은행, KB, 기업은행, 무례츄르, 삼성생명, 신한생명, 송림대우, 금남대우, 한화생명, 오성마을, 금남역역점